

二先生遺訓

卷之單

第

〇〇

4

車製長初音茶士司家用北卷良初

繼十四年家用粗吉年

上二茶香老六清家園

三茶香東六

粗十四年五方

傳米二五五
太耳合后五五

初音太六耳四刀家用

五方太

二七身太四耳四刀家用去成去早



二先生遺訓

晦菴朱先生知南康時示俗文

孝經云用天之道因地之利

謂依時及節耕種田土

謹身節用此致一書民

謹身謂不作非違不犯刑憲節用謂省使儉
用不妄耗費

以事父母

人能行此三句之事則身安力足有以奉養其父母使其父母安穩快樂

此庶人之孝也

庶人謂百姓也能行此上四句之事方是孝順雖是父母不存亦須如此方能保守父母產業不至破壞乃爲至順若父母生存不能奉養父母亡歿不能保守便是不孝之人天所不容地所不載幽爲鬼神所責明爲官法

此三者爾民所當戒也

聖經又言用天之道

春勤於耕夏勤於耘秋勤收斂之類是也

因地之利

高田宜麥低田宜禾之類是也

謹身節用以養父母

謹身是不妄為節用是不妄費

又曰身體髮膚受之父母不敢毀傷

一毫髮一皮膚皆是父母遺體不敢毀傷何
况輕犯刑憲自害身命此二者爾民所當勉
也

右二先生拈出經傳之言爲之註釋以曉
諭民間者也二先生不自爲說而必引經
傳之言者蓋欲民之尊敬信奉也當職按
道之後業欲以一通文字敷告吾民而尚
懼未信而言反歸文具故有意而未果仍

愈二先生亦不自爲說而必藉於經傳則
當職何人乃敢自爲說以望吾民之信從
乎輒以二先生曉諭於南康福建之民者
告我湖西之民此非當職之言也乃二先
生之言也非二先生之言也乃從上聖賢
之言也爾民雖不信當職其可不信二先
生及從上聖賢乎二先生訓辭要旨專在
孝之一字蓋健訟則非孝也

爭山爭田爭
奴婢爭訟不

已者終必陷陵分則非孝也之知之陵常長庶

罪故曰非孝部民之陵官犯法則非孝也

長皆有常刑故曰非孝犯法則非孝也

所禁固不可釋記而衣照華侈家舍踰制

侵陵小民抑棄田民與夫酌酒屠宰斫伐

生松者必犯刑好鬪則非孝也

憲故曰非孝刑好鬪則非孝也

十有二而聞其案則始皆以微事不能愛

其身則非孝也上所謂健訟陵分犯法好

能愛其身不能保其家則非孝也違犯非

故曰非孝不能保其家則非孝也

流徙及不事本業賭博蓄淫之類爾民苟

終必不保其父母之業故曰非孝爾民苟

以此一孝字終身服行則自此閭里成禮
義之俗官府無訟獄之擾庶可以仰副我
聖上導民牖俗之至意豈不休哉今當職論不
孝而以健訟爲首何也當職莅任之後見
道內癩弊之在於喜訟夫喜訟者終必自
陷於罪辜固無非不孝至於山訟則自謂
爲親似若近孝而畢竟危動父母之遺骸
視囚繫如茶飯趨刑配如樂地其爲不孝

又孰甚焉近有沔川鎮岑人之偷塵逃匿
者不得不依國典聞于朝而自官掘
去如此者其不孝之罪尤不可言此當職
之所深慨狀者故并及之爾民聽之毋忽

庚午正月 日 庚午正月 日

이선상유호연화

이선상유호

一石一斗太七年

이선영유후언히

회암주선성이남강싸흔다스리실제속
을보신글이라

호경의니르샤뒤공저말하느도글쓰며싸너
를인하야

하늘시절은의지하야싸흔갈고시드뵈말
이라

몸을삼가고배기름손절하야

음을삼가든그르인으늘하 지말며형벌외범
치말랏말이오쓰기물존절홍음은치물쓰기
를된치고검박히하야방녕저이브절업손
허비큰말랏말이라

바부모물보양하르치니

사름이능히이세귀인을헛하면몸이평안
표힘이족하야능히그부모물보양하르니
그부모로하야꿈안안하그것락하시리라

이느셔인의효되니라

셔인은빈성이라능히이우테귀일을히양
면부야흐로호순이라훈거시오비록부위
아니겨셔도소브티이리후여야부야흐르
능이부모의산업을보전후야직희여파후
고문희치기에니르지아닐거시니가히호
순이라후리라만일부위사라겨신덕능히
봉양치못후고부위아니겨신덕능히보전

하야 직히 지 못하면 이느느 불효호호 사름이니
하늘히 용납지 아니시고 썩히시려 두지 아
니시고 그으호디 귀신의 계척호는 배되고
부리는디 판법의 다스리는 배될거시 나가히
갑히 경계치 아니르거스가

셔산틴션성이복건셔호다
스리실제호
유호신클이라

성경의니르샤디
말논어의호호호
호아호의분

로그몸을니저배그이버이쉬미츠면미혹지
아니하라

사름이일시에분로를느히참지못하야일
을내야신명을헤하고부모셔틴루하면이
느미혹호사름의일이라

또마르샤덕췌억말송스롤하면
리라

홍스하느자느
나라

고...
셔마르 샤디 숨이라 말 용밍을 초히디 기고 짜흠
을흐면 배 부모를 위티케 하리라

이세말 숨은 너희 빛성의 맛당히 형게 흠배
나라

성경의셔 니르 샤디 우희의 내 하근도를 쓰며
봄의 갈기름 보스런이 흠며 티름의 미기를
보스런이 흠며 구은희 거 두기를 보스런이
흠이라

서니 룯인 하야

눅흔 밧희는 밀갈고 누 존 밧희는 벼가 누
라

몸을 삼가고 쓰기 룯 존 절하야 벼 부모 룯 봉양
하르지니라

몸을 삼가문 망녕 저이 하지 아니 흠이 오쓰
기 룯 존 절하음은 망녕 저이 허비 아니 흠이라
또 마르샤 터 알심도 하병 몸과 털과 솔히 다 부모

의기치신거시니 감히헐위상히오 지못흐를거
시니라

흐낫터럭과흐점슬히다 부모의기치신거
시니 감히헐위상히오 지못흐려둔엇지가
브야이형벌과법을범흐야 스스로신명을
해호리오이두말슴은너희백성의맛탕히
힘발배니라

이노이선성이경은
이성현클말슴을써서

주내여 배빅성을 흥흥흥 신거시라 이션
성이 스스로 말을 아니 흥 시고 반드 시경
턴말삼을 인 흥 시문대개 빅성이 존경 흥
고 신봉 흥 과자 흥 심이라 내 이리 온 후의
문조를 민드 라 빅성의 게고 흥 고자 흥 되
밋브게 못 흥 고 말을 흥 면도로 혀 분 귀 될
가 두려 뜻이 이 시 되 못 흥 앗터 니 다 시 성
각 흥 너 이 션 성 도 스스로 말을 아니 흥 시

고반드 시경턴을빙쟈ㅎ 시니네므슴사
롭이라감히스스로말을ㅎ야빅성이밋
기르르브라리오문득이션성이남강과복
건싸빅성의게효유ㅎ 시턴거스로우리
호셔빅성의게고ㅎ노니이느네말이아
니라이션성말슴이오이션성말슴이아
니라넷성현의말슴이니네히빅성이비
록날을밋지아니ㅎ나그가히이션성과

넷성현을밋지아니하_느라이선성말삼의

종요로운뜻이하_느호도호즈의이시니대

가송소를즐기면회아니오_답되_도토_며전

비_도토와송소를마지아_는쳐_라출_어반_도시죄에싸_지는고로회아_니라_하노

라_분을_능멜_하면회아_니오_능제_문이_어려_서

얼_이적_실능_결하_며상_한이_스죽_능멜_하며_빅성이_관장_능멜_하는_져다_잇잇_호형

별_이잇_는고로회_법을_법하_면회아_니오

아_니라_하노_라회_법을_법하_면회아_니오
법의_금하_느일을_다귀_록지_못하_느나_의복
이_사치_하니_와가_세법_의너_드니_와쇼_탄

라	니	을	바	히	형	면	하	범	니	을
능	불	바	송	그	후	처	하	흥	와	침
히	벌	송	스	뎡	의	음	면	흥	솔	능
그	의	스	를	뎡	바	은	회	버	쥬	흥
집	나	를	즐	스	지	다	아	히	정	흥
을	아	즐	기	랑	니	미	니	는	흥	니
보	가	기	느	치	고	흐	오	아	는	와
전	는	느	니	아	로	일	도	반	니	전
치	대	분	분	니	회	로	니	드	와	답
못	다	을	능	면	아	밖	현	시	쇼	노
흥	그	능	멜	회	너	화	타	형	잡	비
면	몸	느	흥	아	라	씨	그	을	아	를
회	을	스	느	너	흥	스	문	바	먹	의
아	스	스	스	오	노	스	안	호	는	탈
니	라	스	스	우	라	로	을	믈	니	흥
라	노	로	로	희	능	능	보	쥬	와	는

스스로 그 큰 일을 하야 회회 네 범하야 하
가느니 아 농수 른 일 삼지 아 나 하 고 투 전
잡기 하며 음난 하 고 방탕 호 제 모 참 어 빈
다 시 그 부모 의 기 업 을 보 전 처 못 흘 지 라
고 노 회 이 니 너 희 백 성 이 진 실 로 하 하 하 드
라 하 노 라 이 니 너 희 백 성 이 진 실 로 하 하 하 드
효 조 로 버 몸 이 못 도 록 복 행 하 면 일 루 보
티 녀 염 은 네 의 예 풍 속 이 되 고 관 투 는 송
소 와 옥 소 의 요 란 흠 이 업 슬 거 시 너 거 의
가 히 버 우 리

성상의 백성을 인도 하며 풍속을 고치시느니

극하오신뜻을마치을거시니엇지아름
답지아나하랴이제너불호물의를논하매
용스름즐기느니로배옷등을삼음은엇
지오버이리은후의보내도니고폐가용
스조하하기네이시니용스조하하느재
미참버반드시죄고의싸질지라진실로
불회아나니갑고산용의니르러스스
로니르되어버이를위하노라하니효의

갓가온듯ㅎ, 나 필경은 부모의 유희를 움
주기고 가치기를 차반으로 알며 휘향을
쥬흔싸 마치아니 그불효되미 누이 예셔
심ㅎ, 리오요스이면 천진 짐사람이 투장
ㅎ, 고도 피ㅎ, 는 재이시며 마저 못ㅎ, 야
죽 전을 의지ㅎ, 야 쥬정의 알외고 관가
로 셔파너니 이 마튼 자는 그 불효의 죄를
터옥가히너라 지못을 자라 이버의 겁히

가인히녀가노나애고로이아드
너히비고성오노스기공비나
경오정월일

다

스
스
